

‘순결을 소중히 하는 고귀한 성품을 지닌 여성과 친박하고 타락한 여성이 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여성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었다. 어찌구비없는 편견이 아닐 수 없다. 여성들조차 여기에 익숙해져 이를 의심해 본 적이 드물다. 아내에게는 순결을 강요하고, 밖에 나가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타락한 여성’을 필요악이란 이름으로 두어왔던 남성중심 사회가 만들어 낸 이중규범의 역지였다.

현대에 들어 페미니즘이 등장, 이 뿌리 깊은 편견을 바로잡으려 노력해 왔다. 도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은 이제 ‘그것이 편견’임을 사회에 널리 인식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전의 ‘윤락행위 방지법’이며 얼마 전 시행에 들어간 ‘성매매 금지법’도 한국 페미니즘의 성과 가운데 하나다.

성(性)이란 매매 대상이 아니다. 그것이 매매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수많은 사회악의 온상이 되어왔고 지금도 그렇다. 성매매금지법은 그런 의미에서 보다 깨끗한 사회를 위한 올바른 선택으로 보인다.

법리의 엄정함이나 법 시행을 다짐하는 당국의 각오도 새삼스럽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기만 하면 한국 사회는 오랜 퇴폐의 늪에서 빠져나와 그야말로 깨끗한 사회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가질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성과 법의 간격

만한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글세’라는 심정적 반응을 갖게 되는 것일까?

문제 자체가 어느 이데올로기적 잣대로 재단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그럴 것이다. 스스로의 도덕적 결벽을 받는 사람들의 도덕적 잣대도 위협할 수 있다.

첫째, 이것은 인간의 욕망에 관한 문제다. 대부분의 종교가 인간 스스로의 욕망에 자신이 고삐를 잡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고삐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우리는 이 드문 이들을

성자의 반열에 넣는다.

개인 생활과 연관되기 마련인 고삐잡기 어려운 이 생리적 욕구를 엄정하게 법으로 집행하기가 그리 쉬운가? 아니, 이 같은 해결법이 오히려 문제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역사적 통찰로 보건데 모든 악을 너무 서둘러 박멸하면 더 큰 악이 생기더라는 경험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둘째, 이 문제의 당사자인 성매매를 하는 여성 문제다.

예부터 성매매 여성은 사회의 대적 없는 약자들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들은 장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택한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그들은 이로써 생활비를 번다. 스스로 좋아 뛰어난 사람은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들이라 해서 ‘타락했다’는 괴로움이 없을까? 성매매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자살을 택한 성매매 여성들은 자책과 함께 막연함을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 보호되어야 할 ‘사회적 약자’의 자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경제문제가 쉽게 풀린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성매매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으면 성매매를 택하는 여성이 줄어들 것이다.

서구 현대사회의 고삐 풀린 성의 자유분방함도 성매매 시장의 위축을 가져왔을 것이다.

성매매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엄정한 법 집행이 아니라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일임을 우리는 선진국의 예에서 배울 수 있다.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이명박 서울시장의 수도도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봉헌서를 낭독하여 규탄을 받더니, 이제 또 정장식 포항시장이 포항시를 기독교 도시로 만들자는 모임의 창립을 주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참으로 공직자들의 기본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개런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과 공직자가 그 공적인 지위에 있는 한 종교에 대하여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이를 어기는 공직자는 단 순히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공직자의 기본 윤리와 강령을 어 깬다는 점에서 엄한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문제들이 종교 사이의 갈등과 오해의 깊은 골을 만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혹 그렇게 신앙심 깊은 공직자가 있어 자신의 종교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야말로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또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가 믿는 특정종교를 공격하려는 방향으로 다른 종교에서 나서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점입가경’ 공직자 종교편향

이는 모든 종교들이 함께 나서서 비판하고 단죄해야 할 일이다. 자신의 종교를 믿는 사람이 공직자의 기본 윤리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그런 몰지각한 공직자가 종교의 평화로운 공존을 해치는 사태에 대하여 다함께 우려하고 그 재발을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기 위해선 우선 불교계가 그동안 어떤 특정 종교의 공격적인 포교로 인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좀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종교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큰 움직임을 주도적으로 일으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과잉 신앙의 표출 정도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던 종교들에 이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다원종교시대의 평화로운 종교 공존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마당으로 끌어내야 한다. 종교 공존을 위한 일에 앞장서고, 그러한 움직임을 위한 이념을 제공할 때 종교적 관용성을 지닌 불교의 우월성이 드러날 수 있으며,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종교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의 종교적 편향에 엄하게 대응하되, 더 큰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큰 움직임을 일으킬 때다.

성대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성수대교 참사 10주기

복이 화를 낳는다는 것은 편안하고 느긋할 때 사치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게으름이 극도에 달하기 때문에 재앙이 생긴다는 것이다. <선림보훈>

1994년 10월 21일 은 국민을 충격과 혼란 속에 빠뜨렸던 ‘성수대교 참사’가 10주기를 맞았다.

느닷없는 다리 붕괴사고로 32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 갔던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희생자 출신교의 학생들은 21일 참사현장에서 추모행사를 열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의 가슴 속에 남겨진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아, 이들은 추모행사 내내 붉은 눈물과 가슴속의 한을 하염없이 쏟아 냈다.

이날 유가족들이 추모사를 통해 밝힌 바깥은 한 가지. 바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 참사가 벌어질 때 마다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고질병’ 중의 하나가 바로 ‘인재(人災)’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어난 대구지하철 참사나 최근에 일어난 관공버스 추락사고 등도 역시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라 할 수 있다.

<중아합경>에서는 “한량없는 착한 법을 알는 것은 방일(放逸)하지 않음을 근본으로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피쳐 못할 사정으로 재해를 당할 수는 있지만, 그 예방과 대책은 인간의 몫이다. 이제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투자에 힘쓰고 일반시민들의 안전의식도 개선돼야 할 때다. 우리의 잘못과 방일로 무고한 사람들이 숨지는 일이 없도록,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수령(현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한국불교 제자리 찾기

조계종과 태고종이 스님들의 자작기존은 물론 승가교시를 강화해 스님다운 스님을 만들겠다고 한다. 요즘처럼 스님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마당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님은 인천의 사표라고 했다. 따라서 스님들은 재가불자와 일반인들에게 마땅히 존경과 공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님으로서의 수행력과 인격을 갖추어 중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됐을 때 불자들은 스님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존경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에 반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불자들을 현혹하는 이상한 각종 범죄가 불교계 신문의 광고에 버젓이 실리고 있다.

어디 이 뿐인가. ‘초종파’나 ‘마정수기’나 하는 정제불명의 종단과 법회가 비일비재해 불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또 사찰에서 오게나 보살계 수계법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동참비를 요구하는 일도 많다. 어찌 불자가 계를 받는 데 돈이 필요하단 말인가.

언제부터인가 올바른 불교의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스님은 스님답고 불자는 불자다움에 한국 불교는 신뢰를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누구 한사람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니라 모든 스님과 불자, 즉 한국불교 전체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도성호(충남 논산시 휘안동)>

한국 불교의 정체성

서양에서 ‘불교’라고 하면 아직도 일본불교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몇 년 전 까지도 선풍적인 유행을 일으켰던 ‘젠 스타일(jen style)’에서조차 다분히 일본색이 느껴진다. 사실 이것은 문화 전반적 문제다. ‘동양’ 하면 일본, 또는 중국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탓이 크다.

이러한 점은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직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에 종속적이라는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일본 불교와의 뚜렷한 차이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외중에 한국불교의 문화 예술이 세계인들에게 주목받고 해외에서 인정받는다는 <현대 불교>의 소식은 반갑기 그지없다. 세계인들이 느끼게 될 ‘한국불교 문화’의 특수성은 포교 기능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론적으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논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은 문화에서 더 나아가 학술적으로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기에 소중하게 느껴진다. <조수우(서울 도봉구 방학동)>

부디 이번 학술 발표를 통해 ‘동아시아 불교’ 속에서 한국불교의 위치가 재정립되기를 바란다. <중국도 일본도 아닌, 그것과는 조금 다른 문화’가 아니라 ‘한국불교’의 전형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한다. <서현숙(경남 김해시 대방동)>

불교환경의제21 실천 서둘러야

불교환경의제21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교환경의제21이 시행되지도 못한 채 사장될 위기라고 하니 가슴이 아프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은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각 교구본사들이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는 무척이나 아쉬웠다.

부처님은 가르침과 실천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또 뜻 생명을 소중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에 반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온 것이 바로 불교환경의제21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을 보면, 불교환경의제21을 너무 쉽게 생각 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사찰과 재가불자들이 불교환경의제21 실천을 준비하자. 그래서 교구본사도 동참할 수 있게 하고 관련 단체와 지자체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자. <조수우(서울 도봉구 방학동)>

연대 민명 심민섭. A cartoon illustration showing a person writing on a board labeled '연대 민명' and another person writing on a board labeled '인간 유언회'. Below them are boards for '조계종' and '불교환경의제21'. The caption reads '억울한 자를 위한 범종'.

Advertisement for 'Shimani' (심마니) ginseng products.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ginseng roots and text: '이것이 명품이다!', '우리 몸속의 새로운 활력 산삼의 신비가 그대로...', '산삼배양근 함유', '오가피 오가피', '오가피 묘목분양 상담 공장 및 농장견학회', '매주 금요일 오후2시 구경도 하시고 선물도 받아주세요.', '심마니 토종오가피 솔사기법 고객사은행사', '제품 및 묘목분양 설명회 참가신청 02)447-9114', '주협농F&B HYUN PUNG F&B CO., LTD.'.

Advertisement for 'Yongga' (영가) books. Text: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가내용: ① 인간의 길흥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예연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가내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흥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명기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1)334-9490, 334-9491 야간: 031)706-3060'.